2026-03-15-icsc Core Message 녹취록

말씀제목: 오직 복음절대망대
말씀구절: 사도행전1:1-8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들어가는 말씀
오후에는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으로 하시기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그게 절대 망대가 될것이다. 절대 망대란 뜻은 무조건 정복이고 반드시 응답되는것을 말한다. 혹 문제가 일어나면 역전시키는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것은 우리가 절대 죽을 수 없다는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을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절대 응답없는것은 없다. 우리는 언약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 언약으로 살아야 하는것이 그것이다. 예수님이 죽었기에 우리는 절대 안죽는다. 심지어 죽으면 살아난다. 영만 그런것이 아니고 육신적인것도 그렇다. 어쩌다 실수해서 망했어 뒤집어진다.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오직 복음이다. 절대 망대가 된다. 절대 지는 법이 없는 망대이고 반드시 정복하는 망대이다. 오만 일이 다 일어나고 전쟁,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다 광야에서도 오만일이 다 일어났다 다 필요없고 전부 몽땅다 뒤집어 졌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것이다. 이것을 매일 확인하라. 계속 들어가다가 어느날 절대 망대가 되는것이다. 그리되어지면 누가 무슨소리를 해도 괜찮다. 세상에 무슨일이 일어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큰소리 안해도 자기 혼자 해도 끝내버린다. 그런 예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 한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한번도 말을 안했다 좋은일 나쁜일 하나도 말안했다 지속에서 하는것 한가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묵상하고 아무말도 안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된 만큼 언약으로 답을 내라. 그말이다.

확실하게 끝내고 선을 그어라. 남은것은 정복이다.

서론
1)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은 그리스도이 보혈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뭐에 대한 약속인가? 원죄를 죽이고 원인인 사단을 죽이는 약속, 무조건 필요없고 해당이다. 잘못해서

잡혔는데도 무조건 이것으로 해방이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다 실수하고 죄도 짓고, 네가 실수 했기때문에 이것은 안되가 아니라는것이다. 아침에도 말했다 실수 보다 더한 불신앙을 한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안되가 아니고 그를 방해하는 인간을 쳐버리신것이다. 그게 복음의 권세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것이다. 약속이고 언약이다.
2)하나님의 하실일에 대한 약속이고 그때 필요한 일에 대한 약속이다. 딱 잡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고 도전하라 300%.
3)절대망대는 내 안에서 영적으로 되는것이다. 다른 말로 결론 나버린것이다. 끝나버린것이다.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내버린다는것이 내안에 들어온것이 절대 망대이다. 내 돈하고 그리스도 보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대부분 믿는 자들도 연결을 못시킨다. 돈은 돈이고 그리스도보혈은 구원받는것이라고 대부분 말한다 그러니 그리스도 보혈과 관계없이 사는것이다. 정리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내 돈때문에 돌아가셨나 내 경제도 거기 있나? 정리를 해봐야 한다. 정리가 되었다면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런것을 위하여 돌아가신것이다. 하나님이 내 돈의 종이신가? 왜 내 돈을 위하여 피흘려 죽으셨는가? 내가 돈이 있으면 평생을 세계복음화 위해 일할것이니까... 돈 없으면 먹고 산다고 시간 다 날려버린다. 내 세계복음화 다 날려 버린다.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눈을 뜬 신자의 기도이다. 돈을 위한것이 아니다. 돈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이다. 여기까지 안가고 돈에 생각이 멈춰버렸다. 내 생각이 돈에 멈춰 버리니까 내 신앙고백이 돈에 멈춰버렸다. 하나님이 돈 주세요 이것으로 끝인것이다. 돈이 있어야 평생 하나님께 내 인생 바칠수 있고 돈이 있어야 제자들과 선교현장을 갈수 있지 않는가요... 육신적 생각에 갇혀 있어서 세계복음화가 안들어온다. 생각이 안 바뀌면 언약을 통과하지 못한다 말만 언약언약 한다. 생각을 바꾸어야 기도가 바뀐다. 되어야 한다. 내가 평생 돈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는 어짜피 배린 몸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도 평생 내 처럼 살아가야 하겠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 기도하시라. 절대 망대이다. 오늘 2부 예배 드린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집에 서도 말씀듣는 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필요없다. 십자가에서 우리인생이 시작되고 끝이 나야 한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한다. 내 인생하고 무슨관계가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봤지 않은가 잘못해서 바벨론에게 잡혀 갔지만 권세는 변함이 없다. 실수 때문에 그렇지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어디있는가? 일부러 그러했다고 해도 일부러 죄를 지었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게속 했어도 잡혀가도 권세는 바뀌지 않는것은 하나님은 안바뀌시니까...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은 기도 안해도 응답주시라고 기도하라 그게 권세기도이다. 나는 기도 안해도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다. 기도가 되는데 안할 필요는 없지만 안해도 응답이 온다. 맞지 않은가? 하나님은 안 바뀐다. 정해놓았는데 괜히 우리가 틀린것이다. 바벨론은 무슨짓을 해도 운명에서 못나온다 정해놓은것이다. 에서가 아무리 힘이있고 능력있어도 절대로 야곱의 축복은 절대 못받는다.
4)이렇게 되어지면 무조건 작품이 나온다. 이것을 하다가 죽어야지, 성경이 이렇게 된다고 증명을 해놓았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았다. 제일 중요한게 첫째 말씀을 좀더 세밀하게 들어라. 말씀대로 하니까, 성경에 쓰여있는 영원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 말씀듣는것을 지속으로 해야 한다. 한번으로 안된다. 언약잡고 기도하고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도달한다. 꼭 이 순서대로 하라는게 아니고 하나님계획따라 가는것이다.

1.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의 절대 언약이다. 잘 아는것이다.

1)그리스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없이 들어온 단어인데 얼마나 되어있을까 생각해본다. 그래도 확실한것은 계속 진도 나간다. 멈춰 있는 법은 절대 없다.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무조건 진도나간다. 결국 우리의 목표 하나님 나라에 있다.
2)하나님앞에 전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것을 위하여 향하여 사는것이다. 아주 틀림이 없다. 오늘 약속이 네 힘으로 되는게 아니다.
3)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로 오직 성령으로, 대체적으로 그리스도는 강한데 성령에는 약하다. 이것때문에 아마 성삼위 하나님의 단어가 나왔겠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4)진짜 남은것은 오직 기도이다. 과거보다 진짜 은혜가 넘치고 있다. 낙심 절대 하지 말고 언약잡고 사는것이다.

2.안디옥교회 -중요하다. 우리가 미국과 남미의 안디옥교회 - 본문의 안디옥교회는 이전에 선교의 개념이 없었다. 구약성경에는 나온 선교는 대부분 억지로 가는 선교였다면
1)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첫번째 선교현장이다. - 우리가 남미로 가야지 이교회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에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위해서 진짜 렘넌트, 다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우리에게 상당한 표본이다.
2)교회내에 제자가 참 많은 곳이다. - 예루살렘에서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주로 그렇다. 우리 안에서도 계속 제자가 일어서야 한다. 많은 제자가 있고 팀을 이루어야 한다.
3)그리고 안디옥교회는 대표적으로 선교에 가슴이 있는 교회였다. - 올해는 재정이 힘들어서 남미 제자들을 한국에 훈련보내는것을 접었다. 슬픈일인데 내 스스로 질문이 있다 네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을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선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조금 미안한 말인데 미국에 있는 다락방교회는 이런 생각을 하는교회는 내 생각에는 없다. 이정도로 선교를 생각하고 현장에 제자를 세워가고 조직이 있는 교회는 일단은 없다.  1년에 한두번 왔다갔다 하는 교회는 있다 우리 처럼 계속 줌으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스스로 현장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다. 리카라과는 팀으 구성되었다. 자기들끼리 5-6명의 목사들이 현장을 개발하고 가겠다고 한다. 나라담당 권사님을 연결시켜주었다.  직접 줌으로 접촉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라고, 두번째 만나고 난후에 보고가 들어왔다. 지속할것이다.  쿠바는 여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다른곳으로 연결이 될것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넬슨 목사가 있다. 이분이 그전에도 이야기 했자 져수와 티비에 안수하고 귀신 나가고 토하고 하는 곳인데 저도 영상을 한번 본적이 있다. 이 목사님이 그런거 하는 분이다. 안젤리카 집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갈때 같이 연결이 되었다. 그때 비행기표를 안젤리카 집사님이 샀다. 예의 주시 하고 살펴보았다 쉽게 보면 신비주의인데 말씀이 들어가겠는가?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강하다 그래서 신비주의 끝까지 하는것을 보면 결국 정신병원에 가더라. 이분이 말씀을 받을까 생각을 했다.

일단 말씀은 거부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것 같다.  갔다 오고 난뒤에 한동안 성경공부에 들어오더니 그 이후에 끊어졌다. 내 혼자 속으로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연결이되더라. 한국 훈련 가고 싶냐고 하니 가고싶다고 해서 안젤리카 집사님이 비행기표 사겠다고 해서 가게 된것이다.  레이꼬 전도사와 소통을 많이 했다. 자기 혼자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레이꼬 전도사가 같이 간다고 하더라.  아마 내 생각에는 40일 동안 메시지 들으면 생각이 바뀔것이다. 만일 생각이 달라지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문이 열릴것이다. 지금도 86명의 목사님의 명단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 목사님들하고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 얼마나 될런지 하나님손에 달려 있는줄 안다. 일단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다는것은 누구에게든지 굉장한 변화가 있을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날때 한번씩 기도해주시라, 언제 한번 그분이 미국에 와서 20교회를 순회하면서 메시지를 한다고 하더라. 만약 이분이 복음으로 바로 서면 이런부분에 상당한 문이 될것이다.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 중요한 문이 된다고 본다. 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와서 예배를 드릴것이다. 생각 나는대로 기도해달라. 선교에 대하여 가슴을 가진교회,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하다. 어떻게 아는가? 안디옥교회를 참 중요하게 쓰셨다. 이교회는 사도바울의 선교운동의 모태교회이다.
4)1차전도운동후에 와서 포럼하고 2차때도 여기서 출발 하고 이곳으로 돌와왔다. 정말 중요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작품 한개를 만들것이다. 미국에 문이 안열리는게 안타깝다. 그러나 남미에 문을 열어주신것만 보다 너무나 감사하고 독보적인 문을 열어주신것 감사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이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나도 제자로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237훈련때도 말했다. 이 목사님들이 몇백명은 아니지만 이들이 내를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 물론 복음이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다. 우리와 같이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남미 가신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고 현재 남미에도 있다. 그런데 내 생각이다 상당히 준비되있는 제자들이 있더라. 내 혼자 결론내려본다. 틀렸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복음에 대하여 발라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이다. 그냥 성경읽어도 상관없다. 그중에서 자기가 이해되는것만 뽑아서 교회에서 설교하더라. 한 분단을 뽑아서 복음으로 착착 설명해놓은것을 들어본적이 없는것이다.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성경전체가 복음으로 해석한것을 들어본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인팩트가 되었을 것이다. 복음누림은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경에 지식이 되는것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한다. 평신도라도 이것이 준비되어지면 쓰임받는다.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평신도인데 성경을 펴놓고 성경공부를 하는데 목사 이상이라. 당신이 누군데 그러냐고 당장 물어볼것이다. 우리교회 와서 해부라고 옆에 교회에도 있다고 말하는게 선교이다.  제가 창세기 책 정리 해놓은것을 책으로 만들어놓았다. 17년 전에 조영석 집사님이 다락방하다가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뭐냐고 물어서 알려주었더니 교정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냈다. 요새는 종이 책 잘 안하고 전자책을 만들어놓았다. 그래도 종이책도 만들어 놨다. 인쇄소에서 만든게 아니고 프린트기로 해서 만들어 놓은것이다. 관심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시라 한권씩 드리겠다. 내 생각인데 만일 그것을 외워 버렸다 창세기는 내 처럼 강의 할것이라고생각한다 왜냐면 내가 한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에 그렇다. 말씀대로 하기때문에 말씀을 바로 알고 하면 그사람을 하나님은 쓰실수 밖에 없다. 말씀대로 라면 두리 뭉실한데 바로 말하면 성경대로 이다. 영어도 번역으로, 스페니스도 마리오 전도사에게 검증해보라고, 어떻게든 남미에 제자들에게 한번씩 한다. 당신이 내 보다도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다 우선 이것을 외우라 그후에 더 크게 쓰임받으면 좋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된것이다. 선교에 대하여 마음이 뜨면 안된다.

3.절대망대를 가진 사람들 - 이 사람들은
1)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모든것을 - 사람으로서는 안되는것 알았던 사람들이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해봐야 오히려 혼선만 일어나기에 그렇다. 다윗도 한마디만 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고, 더 이상 설명하면 싸움만 일어나니 입다물고 가는것이다. 예수님도 그랬다. 오늘 다민족 예배할때 요한복음8장했다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런 저런 소리를 해도 예수님은 대꾸 하지 않으시고 결론만 이야기 하셨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것이 절대 망대를 가진사람들의 첫번째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잘났냐 알았어 네 해봐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도 낙심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하나도 뭐 안해도 된다. 미워하라는게 아니다 살리고 답을 주어야 한다. 답도 설명해서는 잘 안들어간다. 영적수준이 있어도 말해도 잘 안들어간다. 그냥 결과를 보여줘라. 그것으로 끝이다. 왜냐면 결과를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을 하신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 차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2)사람들은 시대와 세상과 사람을 초월을 해서 하나님과 산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연적으로
3)인생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고 기념비 적인 작품이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시대와 세계를 복음화 했다.
4)시대와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가 할일이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줄 믿는다.

4.결론
1)기도에 세계가 있고 응답과 소통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인된다. - 응답이 중요하다.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응답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다.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는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은 한칸 올라섰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땅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아직까지은 사람수준이다.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세계가 참 귀한것이다.
2)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된다. 이 사람은 무조건 정복한다. 정복으로 끝내는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이후에 많은 증거가 또 온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때 부터 시작을 하면 시간이 더 많기에 더 큰 응답이 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 내가
3)내 인생에 답을 가지는것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그리스도가 답으로 와야 한다. 그러면 내가 답을 가진자가 된다. 영적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정복을 한다. 형편없는데 복음때문에 다 있는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이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는데 정복, 절대 낙심 않고 항상 소망, 다른 사람이 볼때는 미친것 같다. 철면피냐 정신이 나갔냐, 그게 신앙생활이다. 다시한번 은혜되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에게는 바벨론 왕, 애굽와 아무 필요없다. 너 죄지어도 관계없어, 불신앙해서 나 안믿어도 관계없어 나는 정했어 그러니 너도 바뀌지 마! 그러면 끝이다. 축복있기를 바란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